

# 건축적인 의상디자인의 기호학적 연구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박명희  
서울여자대학 의류학과  
박사과정 장애란

## 目 次

I. 서론	III.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건축적 기호
II. 이론적 배경	IV. 요약 및 결론
1. 기호의 정의	참고문헌
2. 건축적 기호	ABSTRACT

## I. 서론

인간이 의식을 갖고 의사소통을 시작하면서 ‘기호’는 가장 필수적인 표현-전달방법으로 사용되어 오늘날 記號學(Semiotics)이 유행하고 있다. 그것은 의복이 언어라는 사실을 Balzac의 「이브의 딸들(Daughter of Eve)」이라는 소설에서 “여성들의 의상은 그 개인의 생각이나 말을 상징하는 표현체계”라 말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sup>1)</sup> 또한 건축에서도 그 조형언어는 건축의 실체를 구성하는 건축가의 의지, 감정, 사상의 전달수단으로서 건축디자인을 표현한다. 즉 Charles Jencks가 “건축은 구조적, 경제적, 기계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文化樣式, 生活樣式, 價値, 機能 등의 기호를 매개로 하는 소재와 이를 감싸는 형태에 의한 記號表現의 사용이다.”<sup>2)</sup>라고 한 것 등으로 보아

복식과 건축에 기호분석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식과 건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共同體로 성장해 온 인간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서 의미전달에 목적이 있고, 언어가 주된 媒介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즉 언어는 意味를 明示的 記號로서 혹은 그에 대한 內包的 意味記號로서 작용되고 있으므로, 복식과 건축이 ‘의사소통’이라는 유사성으로 인해 언어기호이론에 적용시켜 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有限數의 音聲으로 이루어진 유한수의 單語를 갖고 無限한 文章을 생성해 내는 창조적 특성과 그 구조에 있어서는 음성과 의미의 두 층을 갖고 下位構造인 음성으로 上位構造인 의미를 결합시켜 言語記號로서의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언어구조체는 성격에 있어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話者가 指示對象物을

1) Alison Lurie著 유태순譯, 衣服의 言語(The Language of Clothes), (서울: 경춘사), 1986, p.1

2) 김개천, “表現主義 建築의 形態論的 造形言語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p.46

聽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위개념과 상위개념을 결합시킬때 언어의 의미체계는 성립되는 것이다.

이를 복식이나 건축의 관점에서 볼 때, 유한수의 형태구조를 갖고 무한수의 형태를 창조하는 특성을 이들은 갖고 있으며, 또한 형태요소로서 복식이나 건축형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뜻에서 언어의 의미체계와 비교 할 수 있으리라 思慮된다. 그러나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는 언어가 전달의 주목적인 반면에 복식과 건축은 전달의 가능성만을 갖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언어는 의미의 表示를 사회적 경험에 의한 명시적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내야 하지만 복식과 건축은 사회적·문화적·예술적·자연적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畵記號를 사용함으로써 기호학(Semiotics)<sup>3)</sup>에서 말하는 『communication』또는 『傳達』이 각양각색의 기호체계에 의한 의미작용으로 체계의 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복식과 건축도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 본다면 그 의미전달과 작용 또한 기호론의 방법론으로서 분석할 수 있음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호학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기호가 실제적으로 파악 할 수 없게 되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추상적 개념으로, 어렵고 비밀스러운 어휘들로 가득찬 새로운 기호학적 분석의 양상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심지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우므로, 분석적인<sup>4)</sup>인 측면보다는 언어와 의미를 매개하는 활동인 해석적 측면에서 본 연구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적인 의상 디자인의

형태미를 기호학적 측면에서 해석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의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기호'의 정의를 내리고, 둘째, 건축적 기호를 해석 정리하여 세째, 건축적인 디자이너<sup>5)</sup> 즉 Cristobal Balenciaga, Charles James, Roberto Capucci, Andre Courreges 등의 작품들을 건축적 기호로 해석할 수 있는가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 될 수 있는 말 혹은 이미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기호학이다.<sup>6)</sup> 오늘날 많은 기호학자들은 기호의 특성과 기호체계에 관하여 아주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의 기호론적인 연구 현상은 가능한 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에 의하여 사용된 기호들의 여러 유형들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7)</sup> 더군다나 모든 것이 하나의 기호가 될 수 있다면, 기호들에 대한 연구는 일상적인 것이 될 만큼 광범위해질 것이다.

기호들의 종류는 다양한데, 크게 언어학적 기호와 비언어학적 기호로 나눌 수 있으며, 언어학적 기호들이 인간의 의사소통에 주요한 구성요소이고 비언어학적 즉 도상적인 기호들이 형태를 갖춘 의사소통이란 이미지의 형태를 띤 모든 의사소통을 가리킨다. 이와같이 기호학이 왜 언어학적이며, 그리고 혹은 시·청각적인지, 그리고 도상적

3) 기호학(Semiotics or Semiotic)은 영어에, 기호론(Semiology)은 불어에 출처를 둔 同義語이다. 언어학에 반드시 의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기호체계 연구에서는 Semiotics란 용어를 써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Semiotics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 가장 큰 단위인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가장 작은 요소에 이를 때까지 점점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

5) Caroline R. Milbank, Couture-The Great Designers, (N.Y. : Stewart, Tabori & Chang Inc.), 1985, pp. 8~9 : 디자이너들의 의상이 어떻게 보이는데 따라 선구자(The Founders), 예술가(The Artists), 순수주의자(The Purists), 흥미주의자(The Entertainers), 과도자(The Extravagants), 건축가(The Architects), 사실주의자(The Realists) 등으로 분류한 7범주 중의 하나.

6) 남정미, "광고의 기호학적 연구", 고려대학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p.20

7) 베르나르 투센쥬 율학로譯,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청하), 1991, p.19

인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인간관계에서 주를 이루는 의사소통의 요소들이기 때문이다.<sup>8)</sup> 특히 도상의 기호학은 이미지의 정체를 밝히려 시도하고 있다. 기호학은 어떤 기능작용 양식(은유, 환유, ... 등등)이 이러한 상이한 이미지들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실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도상의 '윤법'을 수립했으며, 또한 상당수의 이미지들(광고이미지, 회화이미지, 사회적인 이미지, 이념적인 이미지...)에 관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지만 이미지를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분석하는 '정해지지 않은' 많은 이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지, '정해진' 이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도상성에 대한 기호학적 탐구의 다양함을 설명해 준다.<sup>9)</sup>

결론적으로, 기호학이란 의미의 최소단위인 기호를 연구하는 학문<sup>10)</sup>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의미의 최소단위인 기호란 무엇인가를 기호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알아 보기로 한다.

## 1. 기호의 정의

Morris Peirce, Saussure, Locke 등은 記號(sign)를 “다른 어떤 것을 대표하는 무엇”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호란 “어떤 대상이나 생각(idea)을 대신하는 어떤 것”이다.<sup>11)</sup> 기호학은 대표적으로 학문의 공식적 탄생과 학문적 체계를 예언했던 두 학자인 Saussure와 Peirce가 내린 정의에서 출발한다.

Saussure(1916)<sup>12)</sup>에 의하면, “언어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기호의 체계이며, 따라서 씌어진 글, 맹인용 점자, 상징적 축제, 예법의 약호, 군대의 신호에 비교 될 수 있다. 언어는 이 모든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호학(그리스어 'semeion <기호>'에 유래한다)이라고 부르려 한다. 기호학은 기호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법칙이 기호를 지배하는가를 말해줄 것이다. 이 학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할 권리가 있고 그 자리는 미리 정해져 있다.”

Peirce<sup>13)</sup>는 기호를 “어떤 점에서나 어떤 능력에서 어떤 것을 대신하는 무엇”이라고 정의한다. 또 “기호라는 단어는 지각할 수 있는 혹은 단지 상상할 수 있는, 아니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對象(object)’을 나타내는데 사용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기호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야(represent)’만 한다.”

그리고 시각적 기호와 건축적 기호를 다룬 Eco<sup>14)</sup>는 “기존의 사회적 관습의 기반 위에서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기호를 정의했다. 그의 정의에는 자연적 기호 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호들(기호의 관습적 특성)도 포함된다. 기호학은 기호로 택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룬다. 기호는 다른 어떤 것이 의미적으로 대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요도 없고 기호가 어떤 것을 대신하는 순간에 어떤 곳에 그것이 실제

8) Ibid., p.18

9) Ibid., p.60

10) D.S. Clarke, Principle of Semiotics, (London : Routledge and Regan Paul), 1987, p.12

11) Daniel Lafferiere, “What is Semiotics?”, Semiotics Scene Vol. II No. 1, 1977, pp.2~3

12)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enerale, (Paris : Payot), 1916

13) C.S.Peirce, Collected paper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II, (C. Hartshorne & Weiss, Ed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58a, pp.228~230

14)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p.7

로 존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기호학은 원칙적으로 보자면 거짓말을 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해내는 규칙들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호학자들의 이론에서 보면, 전세계의 어떤 것이든 기호화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것은 상상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기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호학이 이루어낸 핵심적인 진전은 언어학을 모델로 삼되, 언어학의 개념들을 언어 자체에만 국한 시키지 않고 餘他의 다른 현상들에 적용시킨다는 점이다.<sup>15)</sup>

## 2. 건축적 기호

본 연구에서는 건축적 기호를 해석하기 위해, 미학적 측면에서 건축의 조형언어인 건축디자인의 요소를 중심으로 건축적 기호를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으로 二分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Marcus Vitruvius Pollio)는 “건축은 유용성(Convenience), 견고성(Solid and Lasting Strength), 그리고 미(Beauty) 등 3개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오늘날 평론가들은 그것을 완전한 기능(Perfect Function), 우수한 구조(Good Construction), 창의적인 설계(Sensitive & Imaginative Creative Design)에 대한 추구라고 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트루비우스 시대 이래 많은 건축론의 시발점에서 제기된 「유용성」, 「견고성」, 「미」의 3요소가 상호관계의 문제로서 명확히 지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 사이의 문제는 건축미학의 중요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것은 건축

론이 일반적으로 미학 내지 예술학에 있어서 예술체계의 일부분으로서 취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건축미학에서 중요한 방법이 된 양식론은 딜타이(Dilthey, W.)에 의해 확립되었는데, 그 이론은 빌프린(Wölfflin, H.)에 의해 예술의 역사상에 응용된 것이다. 딜타이에 의하면 자연과학의 방법이 「설명」임에 대해 정신과학의 방법은 「이해」이다. 「이해」라는 것이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파악하는 과정인 이상,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의 「표현」으로서, 감성적인 것은 정서적인 것의 「표현」으로서 파악될 때, 정신과학적 인식의 목적은 「類型(Type)」이 된다. 왜냐하면, 이미 헤겔이 서술한 것<sup>16)</sup> 같이 모든 문화현상은 동일한 공통의 뿌리인 시대정신을 갖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형」의 개념이 예술의 「양식」의 개념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구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결론적으로 조형물인 건축은 예술이면서 또한 과학이다. 과학으로서 건축은 훌륭하게 설계되고 튼튼하며 실질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야 하며, 예술로서의 건축은 미학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즐거움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건축이 포함하는 모든 공간들은 그 공간이 수용하는 인간의 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크기와 알맞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공간의 크기와 형태가 인간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편리하고 안락한 미적 측면에서 공간 상호간의 물리적 관계는 인간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축뿐만 아니라 의복, 자동차와 같이 일상생활에 결부된 조형물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재료를 가공, 변형 또는 조립하며 목적에 일치되는 물건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와같

15) Daniel Lafferiere, op. cit., p.2

16) 헤겔의 미학은 예술의 체계성과 역사성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세계의 역사적 구조를 이데아의 자기실현의 과정으로서 파악하였는데, 이데아의 감성적 형식으로서의 예술현상 또는 변증법적으로 전개시킴. 이데아와 감성적 형식의 관계의 차이에 기초를 두고 나누어진 「상징적 예술(동양적 예술)」, 「고전적 예술(그리스적 예술)」, 「낭만적 예술(그리기도교 예술)」의 3가지 구별은 미의 기본형태와 예술의 종류 등의 체계적인 문제가 됨.

17) 김수현 外1人, 建築設計·意匠論, (서울: 도서출판 국제), 1992, pp.28~30

은 조형의 과정을 일관하는 계획 즉 조형계획이 디자인인 것이다. 학술적으로 디자인의 의미에 관한 일정한 정의는 없지만, 협의로 현대적 디자인을 정의한다면, '디자인은 인간생활이 목적에 따라서 실용적, 미적 조형을 계획하여 이것을 可視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디자인은 실용성과 함께 미적 요소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目的造形에 속하므로, 디자인의 대상은 실용목적과 미적 요소의 양면을 같이 하는 조형이다. 따라서 건축디자인이란 건축 설계의 일부분으로, 건축물 내·외부가 외관상의 美感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상, 모양, 채광, 조명, 시각, 음향, 색채. 등 전문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건축의 창작이며, 디자인 요소인 선, 형태, 색채, 재질 등은 문자나 숫자의 역할을 하는 조형언어이다. 따라서 디자인 요소중 본 연구의 건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주로 나타난 선, 형태, 재질의 조형언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線의 조형언어를 알아보면, 선은 점이 이동한 궤적으로 모든 형태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한다. 선은 직선계와 곡선계로 나누어 지는데, 직선은 경직되고 완고한 내적 의미를, 곡선은 우아하고 유순한 내적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곡선에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 운동감이, 변화가 많으면 젊음이 느껴진다. 또 모든 선에는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의 기본은 수평방향, 수직방향, 사방향으로, 이들 주요 3방향은 감각적인 작용에도 각각에 따라 내적 의미가 다르다. 건축이나 회화와 같이 물리적인 운동이 없이 정지하고 있는 대상에도 외관의 운동을 느끼는 것은 움직임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다. 건축에서는 건축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운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하는 의미이다. 건축에서의 기둥은 원래 線의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둥에 내재하는 動

의인 것은 위, 아래의 양쪽 방향을 따라 수직적으로 작용한다. 기둥굵기는 시각적인 매스를 증가시키므로 기둥에 중량감을 주기도 하지만, 수직선을 약화시켜 기둥 상하방향으로의 동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기도 한다.<sup>18)</sup> 또 수평선은 직선의 가장 순수한 방향을 가진 것으로 사람이 그 위에서 서서 움직이며 뒹굴 수 있는 바닥선 내지 평면인 반면, 수직선은 수평선에 대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완전히 대립된다. 수평방향은 균형과 중력의 기술로 안정되어 있고 조용하고 수동적이며, 외적하고 알잡하며 평화스런 느낌을 지녀 적막한 바다나 대평원의 수평선에 관련을 가지고 있고, 수직방향은 강력한 지지력, 重心을 내재한 무게중심의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의 윤곽선이나 형이 주는 방향 감일 때에도 모든 수직의 방향에서는 중력을 시사하고 수평방향은 지지력을 표현한다. 수직과 수평의 두방향은 건축적으로나 화면에서도 강한 안정감이 생기고, 靜止的, 영원한 질서와 안정의 상징도 된다. 斜方向은 불안정 또는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자극을 준다. 그러므로 이들 수평·수직·사방향에 대한 심리적인 면도 서로 다르다. 수직은 엄격, 엄정, 완고, 때로는 위엄의 내적 의미를, 수평은 평화, 조용함, 친근함, 지루함을, 사방향은 움직이고 있는, 쓰러지려는 위험, 불안, 순간적·가변적 느낌을 주므로 動感과 주의력도 생기게 한다.

다음으로 형태의 조형언어를 알아보면, 입체의 형은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른 공간에서의 윤곽선이며, 평면상의 윤곽선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입체의 형이 면의 이동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평면의 구체적 형은 선의 이동에서 생기는데 평면의 형은 Shape 즉 형이고, 입체일때에는 형태 즉 Form이 된다. Form은 자연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형과 평면의 윤곽을 테두리(edges)라고 부르며 대부분의 인식적 관계는 이 테두리에 의해서

18) Rudolf Arnheim著 손승광譯, 建築의 力學的 形態(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서울: 세진사), 1987, pp.66~67

결정된다.<sup>19)</sup> Rudolf Arnheim<sup>20)</sup>은 형이나 형태에 들어맞는 적절한 정의를 내렸다. 즉 “형은. 물체를 생산한 내부 힘들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는 형의 두드러진 특징은 윤곽이 아니라 구조이며, 구조는 윤곽의 각과 위치를 결정하는 골격 축에 의해 확립된다고 한다.

형은 형을 둘러막는 선 및 선 안의 공간의 유형과 방향에 대한 느낌은, 수평·수직면과 견고한 직각을 가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은 안정성과 자신감을 전달하며,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원뿔, 사각뿔과 같이 사선으로 된 모서리를 가진 형들은 보다 역동적이지만 덜 안정되어 보인다. 곡선은 방향을 미끄럽게 변화시키므로 사선의 효과가 줄어든다.<sup>21)</sup>

그러나 어떠한 도형도 보는 방식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 형의 ‘모양을 심리학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게스탈트(gestalt)’라고 한다. 「르빈의 잔」이라고 불리는 도형을 이용해서 바탕과 그림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처럼, 시각세계는 바탕과 그림부분의 조합과 연속으로 되어있다. 그림으로서 물체가 보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배경으로서 바탕이 없어서는 안된다. 바탕과 그림이 명료하게 구별될때 물체를 잘 인지할 수가 있다.<sup>22)</sup>

재질(texture)의 조형언어를 알아보면, 시각을 통한 촉각감각인 질감은 촉각적인 경험이 시각을 통해 인지되므로, 사물에 대한 재질감은 시각적 작용만으로 감지할 수 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원적인 물체는 표면과 내용으로 성립되어 있으

며, 그 표면에는 각종각양의 재질감이 뒤따른다. 특히 건축에서의 질감은 ‘무게(무겁다, 강하다)’, ‘빛에 대한 반응(불투명한)’, ‘구조(튼튼한, 균일한)’, ‘촉감(딱딱한, 차가운)’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즉 시각적으로 두껍고(thick), 무거우며(heavy), 뻣뻣하고(stkff), 부피가 큰(bulky) 재질은 크기와 무게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외형(figure contours)을 가릴 수 있고, 특히 인체로부터 눈에 띄는 뻣뻣한 재질은 볼륨감을 증가시키며 더욱 더 무게를 더해주는 모양으로 확대시킨 반면, 얇고 부드러운 유연한 재질은 외형에 달라붙는 형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질감의 개념은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 미술분야는 물론 디자인 전체에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건축적 기호를 알아보기 위해, 건축적 기호를 중심으로, 형태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DeLong<sup>23)</sup>의 ABC(Apparel, Body, Construction)의 범칙에서 복식과 인체, Form(color, textile, line 혹은 silhouette)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간의 대립적인 개념과 Marian L. Davis의 시각 디자인의 요소인 선, 형·형태, 재질 등에서 발췌하여 기호를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으로 二分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DeLong의 대립적인 개념을 건축과 관련지어 보면, 닫힌 개념(closed), 전체적인(whole), 제한적인(determination), 통합적인(planar integration) 개념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思慮된다.

19) 허동국 外3人, 建築의 造形·意匠, (서울: 기문당), 1992, pp.13~20

20) Rudolf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52

21)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 1980, pp.70~71

22) 허동국 外3人, op. cit., p.20

23) Marilyn Revell DeLong, The way we look, (Iow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표 1> 건축적 기호

내적의미 외적형식	볼륨감	지지감(무게중심)	안정감	단순성, 절제미
형태(shape, form)	Three-dimension shape, Hard-edge shape(large, solid, convex) unequally sided form (cone, pyramid, barrel, dome-widening)	unequally sided form(cylinder)	unequally sided form(pyramid, cone) shape(square, triangle, trapezoid)	기하학적 형태, unequally sided form(cylinder or tube-lengthening) simple shape (circle, rectangle, triangle)
선(line)	Thick Line (straight, thick, solid, vertical) Closer to horizontal (diagonal)	vertical line (수직방향 : 重心 내재)	horizontal line (수평방향)	single dominant line(light weight continous)
재질(texture)	rough, stiff, bulky	stiff, thick, crisp, hard	stiff, thick, hard	smooth surface, light

### III.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건축적 기호

본 장에서는 건축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상 디자인을 위의 건축적 기호를 中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디자인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디자이너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패션계에 데뷔하기 전에 건축에 관한 공부를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첫째, 구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두번째로는 여성의 인체를 중요시하여 외적 표현을 위해 인간의 형태와 관련해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로 재단에 능숙했으며, 인간의 형태를 추상화시킴으로써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다.

Balenciaga와 Charles James는 인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구조로 형태를 추상화하는데 출발점으로 사용했다. Capucci나 James의 꽃형태 스커트는 자연에서 발견한 유기적 형태를 통해서,

Courreges는 나선형, 사각형, 원 같은 대조적이고 기하학적 형태를 갖고 작업해왔다. 그들은 드레이퍼리보다는 주의깊은 재단으로 항상 이 구조물들을 명확하게 나타냈으며, 작업방식은 각기 고유의 형태를 갖는 직물<sup>24)</sup>을 사용하는데 이바지 했다.<sup>25)</sup>

그러면 <표 1>을 중심으로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건축적 기호를 디자이너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 1. Cristobal Balenciaga

형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Balenciaga는 인체와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건축물과 같은 외복형태를 창조하였다. 특히 구조적 단순성과 절제미, 볼륨감과 지지감과 같은 내적 의미를 기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외적 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Balenciaga의 예술적 목적은 단순함의 본질을 찾으려는 의도에 기초를 두어, 거의 모든 작품엔

24) 가자, 파이유, 새틴, 이중 니트, Double faced wool, 심지어는 비닐까지도 사용.

25) Caroline R. Milbank, op. cit., p.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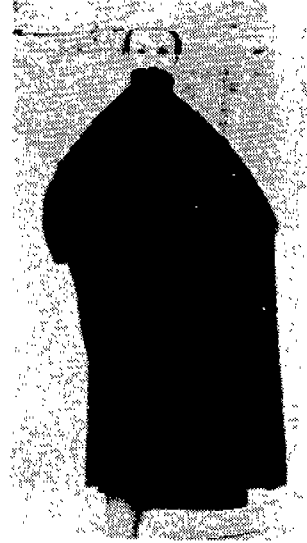
단순한 라인을 위해 모든 불필요한 디테일을 거부함으로써 (그림 4)와 같이 단순성과 절제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Zurban의 영향으로 볼륨있는 형태를 도입하여 전체적으로 수평면과 시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감을 말하는 볼륨의 결합을 교묘하게 구사한 것을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 Balloon style dress(1950)  
(in Balenciaga, p.307)



(그림 2) evening gown(1965)  
(in Balenciaga, p.138)



(그림 3) wool coat(1952)  
(in Balenciaga, p.326)



(그림 4) 사각형 드레스(1967)  
(in Balenciaga, p.253)

(그림 2)는 건축미가 뛰어난 이브닝 드레스로, 단순하며 날씬한 모습에서 건축적인 느낌(형태미)이 난다. (그림 3)은 무거운 직물을 이용한 건축적 재단의 Fuzzy wool로 만든 코트로, 풍성한 피라밋 모양의 실루엣에서 볼륨감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형에서 오는 구조적 안정감이, (그림 4)는



네 귀퉁이가 사각으로 접힌 드레스에서 모던한 조각적인 건축미와 구조적인 단순성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형의 결합을 감추는 디자인과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상의 하중을 지탱해주는 지지감(내적 의미)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앞판은 허리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뒤판은 혈렁하게 보이도록 디자인(외적 형식)하여 구부러진 등을 보정함으로써의 균형감과 (그림 6)에서의 모피칼라와 드레이프가 늘어진 Tunic을 착용하여 구부러진 등을 (그림 7)과 같이 서로 맞기대어 휘감고 있는 기둥이 힘의 생동감을 표현한 버팀대로 받쳐주듯이 보정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지지감을 볼 수 있다.

또 많은 이브닝 드레스 중 하나는 (그림 8)과 같이 무릎까지 다리를 드러내기 위해 앞은 짧고 뒤는 바닥에 끌리게 재단한 외적 형식에서 지지감과 다리로 지탱되는 형식에서 무게중심의 내적 의미가 표현되었다. 기둥 모양이 디자인에 은유적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림 9)의 밑으로 가늘어진 기둥의 모양이 (그림 10)에서와 같이 기둥처럼 꼭맞는 몸체의 라인을 좁은 밴드로 흰색 스커트를 연장시켰다.



(그림 6) Tunic(1955)  
(in Balenciaga, p.206)



(그림 7) Antonio Guadi Guell Colonv Church  
(in The Language of~, p.86)



(그림 5) Jumper style suit(1964)  
(in Balenciaga, p.271)



(그림 8) peacock tail형의 train이 달린 드레스(1959)  
(in 발렌시아가, p.173)



(그림 9) 라이트/ Johnson Wax Building, Racine 윈스콘 신 주(1963, in *The Language of~*, p.28)



(그림 10) evening dress(1939~40)  
(in 발렌시아가, p.118)



(그림 11) Four-Leaf Clover Ball Gown  
(1953, in *The Genius of Charles~*, p.65)

## 2. Charles James

재단과 구성의 대가인 그는 기술적인 완벽주의의 정밀함으로 옷을 연구하였고, 특히 마치 바람에 펄럭이는 중에 포착한 것 같아 보이는 이브닝 드레스들은 시·공간의 순간의 움직임의 본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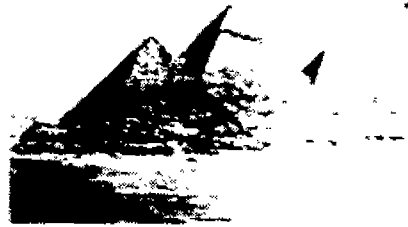
획득한 것이다.<sup>26)</sup> 그의 이브닝 드레스들은 보통 비대칭적이었고 데콜타주 주위와 스커트 전체에 주름을 잡아 볼륨감과 비대칭에서 斜方向의 動感의 가변적 느낌과 무게중심을 위해 리본을 달아 조정 하였으므로 그 옷을 입은 여성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보였다. 그중 (그림 11)은 드레스가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건축적인 특별한 광경에서 우연적 형태로 만들어진 드레스로, 네잎 클로버일 또는 '추상적인 드레스'라 부른다. 꼭맞은 bodice와 1948년 클로버일 모양의 beret에서 영향을 받은 스커트는 구조적으로 흰색 새틴과 조화를 이루는 검은 벨벳으로 이루어진 꽃잎의 단면으로 형성되었다.<sup>27)</sup>

제임스의 슈트와 코트는 매우 구조적이었고, 기하학적인 술기에 의해 평면적으로 갈라지는 두꺼운 울로 만들어졌다. (그림 12)는 pyramid 혹은 cone-型的의 Gothic Coat로, 좁은 어깨는 satin band로 강조되었고 뒤판과 옆선에 등글고 각진

26) Ibid., p.328

27) Elizabeth Ann Coleman, *The Genius of Charles James*, (N.Y. : Brooklyn Museum), 1982, p.86

godets를 달아 피라밋 구조(그림 13)를 이루는 외적 형식에서 구조적인 단순성과 안정감 및 볼륨감의 내적 의미가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는 거의 단단한 직물로 draping으로 만든 'Poetic Mantle'로, 여기에서도 구조적인 안정감과 단순성, 볼륨감과 피라밋 모양의 이상적인 형태의 건축미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적 형식을 보면, (그림 14-1)은 stand collar에 허리선에 arm slits이 있으며 꼭맞은 뒤허리선으로 이루어진 evening cape이고, (그림 14-2)는 fitted한 bodice와 사각을 이룬 허리선, flare된 바닥길이의 skirt가 달린 evening coat이다. (그림 14-3)은 stand collar가 달린 각진 어깨, 자연스럽게 떨어진 V-형의 panel들로 구성된 앞판과는 달리 뒤판은 axis-cut yoke로 꼭맞게 되었다. (그림 15)는 앞중심의 hipline에 잡힌 주름이 마치 이오닉 열주에 잡힌 주름과 유사한 이상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림 13) Giza의 피라밋 : 거대한 규모, 사각뿔 모습은 중요성, 영구성, 경외감을 나타냄.  
(in 건축의 조형~,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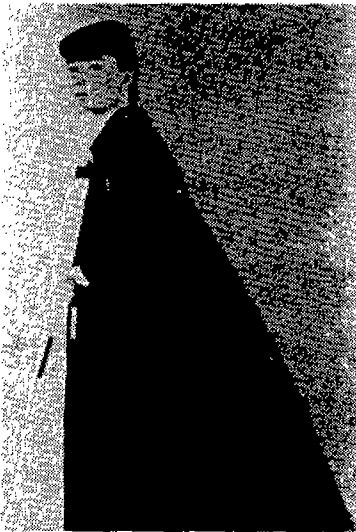


(그림 14) Poetic Mantles  
(in The Genius of~, pp.18~19)

(그림 14-1) Evening cape (1936)

(그림 14-2) Evening coat (1936)

(그림 14-3) Great cape (1936)



(그림 12) Gothic Coat(1954)  
(in The Genius of Charles~, p.61)



(그림 15) Evening dress(1944)  
(in The Genius of Charles~, p.39)

### 3. Roberto Capucci

작업을 ‘형태에 대한 연구’라고 부른 Capucci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접근에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원추형의 한계를 거부하여, Box형을 기본으로 한 컬렉션에선 각 튜닉과 드레스는 2개의 솔기를 가진 뾰족하고 여유있는 사각형 실루엣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그의 드레스는 은유적으로 벨트를 풀면 마치 무게없는 풍선처럼 날아갈 것 같으며, 험아래나 어깨에 나비날개, 부채, 꽃잎 그리고 물고기의 지느러미같은 형태로 인체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외적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림 16)은 볼륨감이 있는 꽃형태의 skirt가 달린 Ball gown으로, 여성적인 美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었고, (그림 17)은 hemline이 경사진 red ottoman silk dress로, Balenciaga의 (그림 8)과 같이 볼륨감이 있는 skirt 뒤에 길게 달린 train에서 지지감과 무게중심의 내적 의미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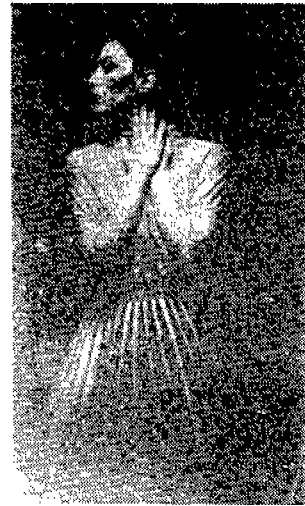
(그림 18)의 skirt에 규칙적으로 주름을 잡음으로써 이상적인 형태의 건축미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flower-form ball dress  
(in Couture, p.336)



(그림 17) ball dress  
(in Vogue, p.233)



(그림 18) 규칙적인 주름이 잡힌 skirt  
(in McDowell's Directory~, p.114)

### 4. Andre Courreges

앙드레 쿠레쥬는 의상 디자인에서의 비례는 건축에서 구조를 쌓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옷에서의 기본 구성을 기하학적 라인에 두어 A-라인, 사각형, 사다리꼴... 등의 분명한 실루엣을 이름으로써, 그의 의상은 놀라울만치 탁월한

28) Peter F. Smith, Architecture and the Human Dimension, (New Jersey : Eastview Edition Inc.), 1979, p.10 : 조경희, “앙드레 쿠레쥬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건축양식 특성 연구”, p.43

비율 감각으로 순수, 정확하고 신선하며 젊어보인다. 예전의 모든 과장된 것을 떼어버리고 그 자체의 구성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의상 디자인에 건축의 모더니즘(Modernism)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부분을 강조하면서 꾸레쥬는 장식스티치, 바이어스 밴딩(Bias-banding), 그리고 가장자리 솔기장식으로 단순화시킨 구성을 강조했다. 갑자기 세상은 그의 미래주의적 정밀함, 즉 형태의 단순함과 다리와 팔의 노출, 아기같은 신발과 모자, 장갑 등이 아름답게 대비되는 정밀함에 매료되었다.

(그림 19)는 우주시대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외적 형식으로 기하학적인 라인에서 구조적인 단순함의 내적 의미가 표현되었고, (그림 20)은 모더니즘이 아주 잘 표현된 시가렛 팬츠에서 절제미, 형태의 단순함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림 21)에서도 외적 형식이 직선적인 실루엣에 활동성과 쾌활함, 건강미와 젊음의 내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함 속에 신비적 요소를 지닌 옷들을 만들어내며 미래를 향한 도약을 시작한 그가 1964년에 “다리를 길게 하라(Elongate the Leg!)!”로 ‘모두 입을’ 바지의 수용을 널리 대중화시켜 앞의 pleat와 cuffs, 옆주머니와 fly-fronts, 그리고 벨트고리가 달린 웨이스트 밴드(belt-tabbed waistband)조차도 없애버려 현대의 기능적인 건축의 단순함이 표현되었다. 즉



(그림 20) 시가렛 팬츠(1963)



(그림 21) 꾸레쥬 룩(직선적인 실루엣, 1960s)



(그림 19) cosmonaut turnouts(1968)  
(in Couture, p.347)

그의 바지는 은유적으로 난로 연통처럼 가늘고 타이트하며 가는 고리가 연결된 벨트부분이 힙 바로 윗선에 걸쳐지는 스타일이었다. (그림 22)는 (그림 23)에서와 같이 커링의 묘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단순하며 기능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또 앙드레 꾸레쥬는 건물을 짓듯이 사람 위에 옷을 건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둔탁하고

딱딱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비닐, 금속류, 시퀀스 처럼 광택나고 투명한 재료 선호는 그 당시 현대 건축에서 선풍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유리, 금속류, 크리스탈 등 비치고 광택나고 건축재료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구적인 재료 사용 결과로 보여진 괴상하고 선정적이면서도 아주 단순한 패션은 미래 지향적인 건축양식의 구조의



(그림 22) 커팅과 모미를 살린 ran coat



(그림 23) 원과 사각이 커팅된 빌딩  
(in 건축의 조형·외장, p.25)

'simple', 'plain' 느낌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다.<sup>29)</sup>

최근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건축적 조형미와 단순하면서 우주 공간을 선회하는 듯한 입체적인 라인(그림 19)으로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以上으로 건축디자인 요소의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건축적인 의상디자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기호를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으로 살펴본 결과, 외적 형식으로 표현된 내적 의미를 기능적 특성과 미학적 특성<sup>30)</sup>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더우기 그것을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었던 것은 Zurko의 이론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Zurko는 기능이 아름다움의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건축은 목적에 대해 형태를 엄격히 적응시켜야 하며 또 건축의 우수도나 아름다움을 측정하는 척도로 기능성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답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질서가 美의 질서와 어느 점에서 공통성을 갖을때, 그 공통성의 부분에서만 기능성과 美가 함께 존재할 수 있기<sup>31)</sup> 때문이다. 그것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IV. 요약 및 결론

기호란 유의미적으로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것으로, 일정한 내면적인 내용과 외면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적 형식을 기호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즉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형식을 기호적 표현으로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의미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외적 형식으로 二分하여 건축적인 의상디자인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하였다.

29) Ibid., p.43

30) 美에 대한 추구가 건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축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학 이론의 최초의 종류는 美를 특별한 형식적 관계(높이, 폭, 크기, 색채 등등)의 기본적인 결과이므로, 미는 형태 그 자체라든가 또는 그것을 인지함으로써 존재하거나 야기된다.

31) 성기택, 造景美學, (서울: 학문사), 1979, p.23

〈표 2〉 건축적인 의상디자인의 기호학적 해석

내 적 의 미		외 적 형 식	
기능적 특성	볼륨감	볼륨있는 형태의 도입 (주름 및 무거운 직물사 용), 사각형 실루엣	Balenciage Charles James Roberto Capucci
	지지감(무게중심)	앞은 허리가 오목하게 들 어가고 뒤관은 험령하게 보이는 디자인, 앞은 짧 고 뒤는 바닥에 끌리는 Train(다리에서 무게중 심)	Balenciage
	구조적 안정감	원시적인 형(삼각형) form(pyramid, cone型)	Balenciage
	구조적 단순성, 절제미	유기적인 형태(꽃모양), 대조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나선형, 사각형, 원) 단순한 라인을 위해 불필 요한 디테일 거부(형태 의 단순화)	Roberto Capucci Charles James Andre Courreges Balenciage
미학적 특성	건축미	우연적 형태 이상적 형태	Charles James Balenciage

본 연구에서 건축적이라란 것은 Caroline Renold Milbank가 디자이너들의 의상이 어떻게 보이는가(외적 형식)에 따라 분류한 한 범주로, 구조적이며 특히 여성의 인체를 중요시하여 인간의 형태와 관련해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능력이 있어 인간의 형태를 추상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창조한 디자이너들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그들이 인체의 형태를 추구함에 있어 나타난 내적 의미에서의 기능적인 특성으로는 볼륨감, 지지감(무게중심), 구조적 단순성, 절제미가, 미학적 특성으로는 이상적 형태와 우연적 형태에서 보이는 건축미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Balenciaga에게서는 볼륨감과 지지감, 구조적 단순성과 절제미가, Charles James에게서는 시·공간에서의 움직임의 본질을 포착한 우연적 형태에서 구조적 단순성인 내적 의미가, Roberto Capucci에게서는 여성신체를 곡선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여 자연에서 발견한 유기적인 형태에서의 볼륨감과 구조적인 단순성 및 Balenciaga와 같이 지지감과 무게중심이 내포된 디자인이, Courreges에게는 디자인에 건축의 modernism이 도입된 절제미와 미래주의적 정밀함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단순성, 커팅의 묘미를 살린 기능적인 디자인에서 구조적인 단순성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수현 外1人, 建築設計·意匠論, (서울: 도서출판 국제), 1992
- 베르나르 투센폴 윤학로譯,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청하), 1991
- 성기택, 造景美學, (서울: 학문사), 1979
- 허등욱 外3人, 建築의 造形·意匠, (서울: 기문

- 당), 1992
- Alison Lurie著 유태순譯, 衣服의 言語(The Language of Clothes), (서울 : 경춘사), 1986
  - Charles Jencks著 송중용譯, 現代 포스트 모던 建築의 言語(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서울 : 태림문화사), 1991
  - Modern Sculpture, Architecture, 서울미술대전집 No. 5, 1990
  - M. Salvadori/R. Heller著 윤일주 外1人譯, 建築의 構造(Structure in Architecture), (서울 : 기문당), 1993
  - 김개천, “表現主義 建築의 形態論의 造形言語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남광미, “광고의 기호학적 연구”, 고려대학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1
  - 이경환, “Post-Modern 建築의 記號學的 分析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조경희, “앙드레 꾸레쥬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건축양식 특성 연구”, 복식 Vol. 23, 1994
  - Marcia A. Morgado, “Animal Trademark Emblems on Fashion Apparel : A Semiotic Interpretation”,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 11-2, Winter 1993
  - Caroline R. Milbank, Couture—The Great Designers, (N.Y. : Stewart, Tabori & Chang Inc.), 1985
  - Coline McDowell, McDow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5
  - C.S.Peirce, Collected paper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II (C. Hartshone & P. Weiss, Ed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58a
  - Daniel Lafferiere, “What is Semiotics ?”, Semiotics Scene Vol. 1 No. 1, Jan. 1977
  - Dr. Charotte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 Fairchild Pub.), 1985
  - D.S.Clarke, Principle of Semiotics, (London : Routledge and Regan Paul), 1987
  - Elizabeth Ann Coleman, The Genius of Charles James, (N.Y. : Brooklyn Museum), 1982
  - Jane Mulvagh,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Y. : Viking Penguin Inc.), 1988
  - Marie-Andree Jouve, Balenciaga, (N.Y. : Rizzoli), 1989
  - Murray, Maggie Pexton, Changing Style in Fashion—who, what, why, (N.Y. : Fairchild Pub.), 1989
  -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 ABSTRACT

### Architectural Fashion Design Interpreted by Semiotics

Semiotics is an external expression for showing internal meaning, and the signs express the internal meaning. The architects and the designers are very similar each other in using semiotics for expressing their desires. Historically, the design similarity exists between the architecture and the fashion. In this study, the fashion designs are interpreted by using semiotics of architectural design, especially emphasizing external expression methods for representing internal desires.

To express the human body's characteristics, the volume, weight support, structural simplicity, controllability and and beauty of fashion were used for the fashion designs, and



those characters could be found at the architectural patterns.

Balenciaga's fashion emphasized the volume, the weight support, the structural simplicity and the controllability, while Roberto Capucci rejected the approach of using women's body curves, but used the volume and simplicity of nature in addition to Balenciaga's heavy

weight design patterns. The control and the modern dedication were used to make the simple patterns by Courreges, and then brought the Modernism to the fashion. Courreges used the cutting characters to functional design for expressing the structural simplicity.